현금흐름표의 이해와 활용

신장훈 전무
KPMG 삼정회계법인
Tel. 02-2112-0808
jhshin@kr.kpmg.com

목차

1	K-IFRS 실무해설을 시작하며
2	K-IFRS 도입에 따른 핵심적 변화요소
3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4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1)
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2)
6	K-IFRS의 특징적 회계처리(1)
7	K-IFRS의 특징적 회계처리(2)
8	K-IFRS 주석정보의 활용(1)
9	K-IFRS 주석정보의 활용(2)
10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K-IFRS재무정보 분석시 고려사항
11	현금흐름표의 이해와 활용
12	K-IFRS도입과 연계된 공시제도의 변화

2015년 3월 금융연구원의 '최근 기업부문 건전성 분석을 통한 금융 안정성 평가와 시사점'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상장회사가 2010년 93개사에서 2013년 177개사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이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K-IFRS로 변화되었지만, 발생주의라는 재무제표 작성의 근간에는 중요한 변화가 없으므로,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창출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의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현금흐름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금흐름표의 중요성

근본적으로 기업경영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며,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와 주주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발생주의의 원칙하에 작성된 손익계산서는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다수의 회계처리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창출능력을 표시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유동성위기기 심화되었던 1990년대 후반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1. 1990년대 후반 부도기업의 경영분석지표와 현금흐름 정보〉

구분	부도기업			산업평균
	1994	1995	1996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131.02	129.64	117.01	101.42
당좌비율	83.41	80.84	74.69	63.70
부채비율	352.40	346.02	444.18	353.85
수익성비율(회)				
매출액순이익률	1.38	0.72	△4.05	1.15
총자본경상이익률	1.93	1.22	△2.30	1.66
자기자본순이익률	4.10	2.01	△3.77	3.79
활동성비율(회)				
총자본회전율	0.79	0.76	0.77	1.07
매출채권회전율	4.25	3.84	3.81	6.14
재고자산회전율	7.12	6.57	6.40	6.7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15.10	15.60	12.27	19.66
총자산증가율	20.30	16.41	11.88	17.85

현금흐름	1994	1995	1996
영업활동	-	-	-
투자활동	-	-	-
재무활동	+	+	+
순현금	+	-	-

표1에서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유동성 위기의 상황에서 실제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및 성장성 등 전통 적재무비율들은 산업평균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도가 난 기업들의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이 모두(-)를 나타내었으며, 재

무활동(차입)에서만 현금흐름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외부차입등으로 버텨낸 기업들은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도가 난 상황을 현금흐름표가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금흐름표는 실질적인 현금의 조달역량과 경로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이 기업의 자금 흐름경로를 이해하고 채무의 상환과 배당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의 이해

현금흐름표는 직접법 또는 간접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간접법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다. 현금흐름표는 사업기간동안 기업이 보유한 현금의 변동을 영업, 투자 및 재무의 3가지 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표2. 현금흐름표의 구성〉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XX
1. 당기순이익	XXX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XXX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XXX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XXX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XX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XXX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XXX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XXX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XXX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XXX	
Ⅳ. 현금의 증가(감소)		XXX
Ⅴ. 기초의 현금		XXX
Ⅵ. 기말의 현금		XXX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을 쉽게 요약하자면, 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변동을 현금흐름으로 해석하여 작성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기말 대비 당기말의 매출채권이 증가하였다면, 자산의 증가를 위해 현금이 유출되었다고 가정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으로 표시한다. 자산의 취득에 따라 유형자산이 증가하였다면 유형자산의 취득을 위해 현금이 유출된 것이므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포함시켜 표시한다. 반대로 매입채무가 증가하였다면,부채의 증가를 통해 현금이 유입되었다고 가정한다. 만약, 당기 중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배당금 지급에 따른현금 유출분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이처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가 및 감소 원인을 현금의 유입, 유출과 연계시키되, 이를 활용요인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현금흐름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변동요인 중에는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비를 포함하는 각종 손상차손 등의 경우이며, 이와 같이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 및 가산하여 조정함으로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표시하도록 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좁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을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현금흐름의 유입, 유출이 없는 손익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등의 변동원인을 현금흐름과 연계하여 표시함으로써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다.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의 주된 사업, 즉 일반적으로 판매 및 구매와 생산활동의 결과 얻게 된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을 표시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산의 증가와 감소를 통해 유출 또는 유입된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채와 자본의 증가 및 감소로 인해 유입 또는 유출된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차입금의 조달이나 상환, 증자, 감자, 배당금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로 재무정보이용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대안적 지표로서 현금흐름정보의 활용

발생주의로 처리된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와 달리, 현금흐름표는 기업이 창출하고 사용한 현금을 그 원천별로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유동성과 지급능력, 현금흐름의 사용용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현금흐름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3. 현금흐름표 사례- 분류〉

구 분	사례1	사례2	사례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표3에서 사례 1은 목적사업에서 경상적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신규투자를 실시하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배당 포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자로 인한 성장가능성과 재무안정성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반면, 사례 3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차입이나 주주 자본납입을 통해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로 현금흐름에 매우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의 보완적 정보로서 기업의 계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현금흐름의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현금흐름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호에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기업간 회계처리 방법이나 회계처리를 위한 가정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반면,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상대적으로 기업간 높은 비교가능성을 제공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4. 현금흐름의 분석의 사례〉

손익계산서

구 분	A사	B사
매출액	1,250	1,250
매출원가	865	752
매출총이익	385	498
판매비와 관리비	168	168
영업이익	217	330
금융원가	28	28
기타수익	370	
기타비용	75	75
당기순이익	484	227
*감가상각비 정보	226	113

현금흐름표

	A사	B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340	340
당기 순이익	484	227
감가상각비	226	113
유형자산처분이익	(37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500	-
유형자산처분	500	-
증가한 현금	840	340

기초, 기말의 자산, 부채의 수준은 동일하고,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는 130으로 가정, 법인세효과 무시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실현손익(공정가치 회계처리의 결과 등), 감가상각비나 손상차손 등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은 대부분의 회계처리 결과를 제거하여 산출하며,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상대적으로 기업간 높은 비교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상기 표4의 단순화된 사례를 살펴보면, 감가상각비 및 유형자산의 처분상황 이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A사와 B사의 경우, 상이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지만,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발생시킨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제거되고,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투자활동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현금흐름은 기업간 높은 비교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차이가 중요한 기업간의 비교목적으로도 활용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